

ONUC8) 경남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도입의 실효성

참가자_호승모

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

지도교수_박종길

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

1.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

- 최근 미세먼지는 인체에 많은 피해를 입히며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로 규정되기도 하였다. 연도별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PM_{2.5}는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.
- 현재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, 경남도의 경우도 고농도 시기 환경기준을 초과하며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계절관리제에 관한 검토 및 대안마련이 필요하다.

2. 과제의 내용 및 범위

- 경남도의 미세먼지 농도의 연도별, 계절별 특성을 살펴보고, 특히 고농도 시기(12월~3월)의 농도 특성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고 수도권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경남도민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.

3.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

- 경남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, 초미세먼지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계절별로는 하계에 농도가 낮고 동계 및 춘계에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, 특히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경남도내 전 관측지점에서 고농도를 나타내었으며 ‘나쁨’ 수준과 ‘매우나쁨’ 수준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.
-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절관리제에 대한 경남도민의 인식 조사결과 노후 차량 및 배출등급 5등급이하 차량의 운행제한을 적극제한 하였으며, 차량 2부제와 노천소각 금지 및 단속에도 큰 관심을 나타내었으며, 특히 취약계층(노약자, 폐질환자 등)의 여부에 관계없이 도민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지원대책이 마련될 경우 계절관리제 실효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었다.